

## 미얀마 군부(SPDC), 아웅산 수 지 여사 연금 해제

- 미얀마 군사정부(SPDC: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는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 지 여사를 5월 6일 1년 여 동안의 가택연금에서 전격 해제하여 향후 정치 대화합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음. 그러나 군사정부가 근본적으로 상당부분 권력을 향후 수년 이내에 야당에 이양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편임.

### □ 각국의 압력 가중으로 인한 수 지 여사의 연금해제 선택

- 대부분의 대 미얀마 원조국들은 1998년 이래 원조를 중단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투자 및 무역이 극도로 부진한 상태임.
- 미얀마의 경제성장은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가 격감하면서 크게 둔화되고 있고 장기경제전망도 어두운 편이며 고인플레이션, 빈곤심화, 생필품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미얀마는 아세안 주변국들로부터도 정치개혁에 대한 압력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곤과 만달레이에 야당사무실을 재개하도록 허용하였고 국영방송의 야당비난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 한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도 미얀마 대 아세안 관계개선에 노력해오고 있음.

### □ 향후 전망

- 근본적으로 군부가 권력일부를 야당에 이양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유엔특사인 라잘리를 포함한 일부 관측통은 군부가 2-3년 이내에 야당인사를 포함한 과도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핵심정치권력과 국영사업관련 이권을 군부가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군부는 또한 신 헌법의 제정을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총선에 대비할 가

능성도 있으나 군부는 이 경우에도 원내 일부 의석의 군부 할당이나 친 군부 정치단체의 육성을 통해 입지를 유지하려 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정치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1997년부터 취해온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정치범 즉각석방과 야당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도 정치개혁 진전시 원조를 재개할 입장을 보이고 있음.